

내외 소식

방문자 센타 개관

지난 10월 7일 광주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소개하는 방문자 센타가 개관되었다.

전국에 퍼져있는 200여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모여 광주시내에서 집중 전도 활동을 편후에 가진 이날 개관식에는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방문자 센타를 찾았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 선교 지역에서 여러 신권 지도자가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선교사들은 우중에도 그룹을 지어 찬송가를 부르며 광주시내를 다니면 복음을 전도하였다.

또한 저녁 7시에 가진 대개관식에서는 선교부장,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한 신권 지도자들의 말씀이 있었고 선교사들로 구성된 보컬팀의 훌륭한 음악과 훌덴스 공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400여명의 방문자들은 처음보는 선교사들의 선물에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 2 와드, 4 와드 합동 상향회 갖다 ”

1974년 8월 31일(토)에 2와드와 4와드의 아론 신권 상향회는 전 종철 고등 평의원을 감리자로 모시고 4와드 상향회 홀에서 합동 상향회를 개최하였다. 피구, 농구, 민속무용 등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선수들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였으며, 양팀 스탠드에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은 응원단은 득점할 때마다 열띤 박수를 보냈다. 근래에 보기 드문 훌륭한 모임을 가져, 참석한 모든 사람이 상호의 유대와 우의를 다짐할 수 있었다.

신학연구원, 한국 선교 역사에 관한 전시회 갖다

지난 9월 2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신학 연구원에서는 신학 연구원 학생회 주관으로 이 호남 원장님을 비롯하여 선교부장단, 고등 평의원, 감독 및 여러 신권 지도자와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년간의 한국 선교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알뜰히 간직하였던 선교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회원이 된 김도필 자매와 고김 호직 박사의 딸인 김 영숙 자매의 개종 이야기를 들었으며, 선교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지켜본 선교부장단을 비롯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교회 발전이 있기 까지 많은 사람의 봉사와 수고가 있었음을 되새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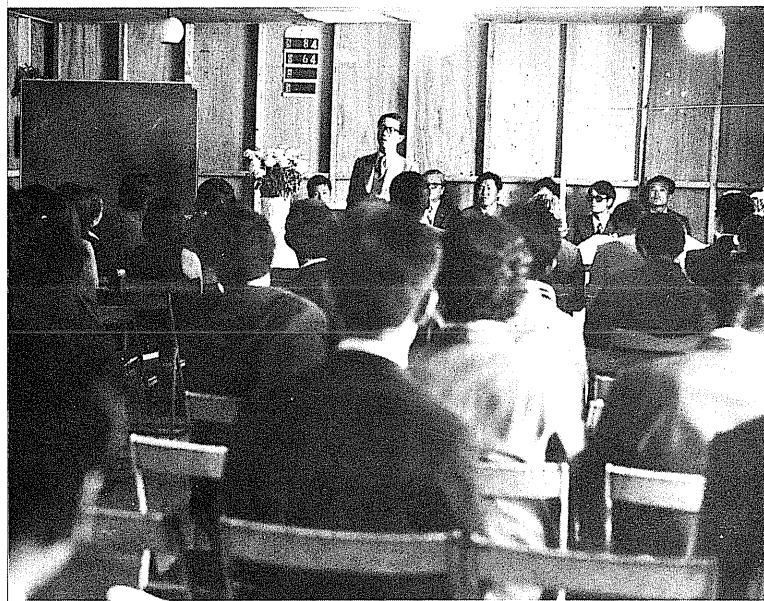
신촌 지부, 지부 대회 갖다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신촌 지부는 교리와 성악 43편 24절을 주제로, 지부 대회를 가졌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시작된 이날 지부대회에는 역대 지부장이 모두 참석하여 발전하는 신촌 지부의 모습을 재 확인해 주었다.

전 대회를 통하여 지부회원들은 우의와 단결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었으며 스테이크부장과 김 산, 박 래정 두 고등 평의원의 말씀으로 모임이 더한층 영적인 분위기로 고조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외국인 한국 무용, 가요 컨테스트



지난 9월 24일 오후 1시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제7회 외국인 국악, 무용 가요 경연대회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말일성도의 재질을 크게 과시한 바 있다.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를 부른 버크너, 던포드, 리찬, 홀머 장로팀이 1위를 차지하였고 “고향이 좋아”를 부른 빌라세노와 웨리장로팀이 2위에 입상하였으며 “풍년가”를 부른 테일러, 위플, 윈더 장로팀은 등외에 머물렀다.

KBS-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광규석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추석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새로 조직된 대구 지방부

9월 22일 부산 지부에서 열린 영남 지방 대회에서 최 갑수 형제가 대구 지방부장으로, 배 성수 형제가 제1보좌로 박 원길 형제가 제2보좌로 각각 지지받고, 선교부장단의 안수를 받음으로써 대구 지방부장단이 새로이 조직되었다.

이로써 대구 지방부는 산하에 대구 중앙, 서대구, 남대구 지부를 두게 되었다. 대구 지역 성도들은 앞으로는 영남 지방부 산하에 있는 부산, 진해, 마산 등지의 성도들을 대회 때마다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으나 새로 임명된 훌륭한 지방부장단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지방부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김 신환 형제 내한, 내년 한국공연

고 김 호직 박사의 장남인 태너 김 신환 형제가 20년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김형제는 볼란서와 이태리에서 많은 음악 수업을 쌓고, 현재 이태리에서 활약하고 있다.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그는 세계 무대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내년봄에는 한국에서 카르멘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일간 스포츠" 10월 10일자 기사를 함께 싣는다.

伊 오페라계의 惑星 테너金辛煥씨

明年봄 歸國공연 實現



이탈리아의 오페라계에서 유망한 테너로 알려진 김신환(金辛煥)씨(24)가 내년 봄에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여 카르멘을 공연할 예정이다. 김씨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테너로, 이미 여러 국제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귀국 공연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해외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동안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향에 돌아와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내년 봄에 한국을 방문하여 카르멘을 공연할 예정이다. 김씨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해외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동안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향에 돌아와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多彩로운 受賞영예 안고 伊一流 오페라團서 활약

이탈리아의 오페라계에서 유망한 테너로 알려진 김신환(金辛煥)씨(24)가 내년 봄에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여 카르멘을 공연할 예정이다. 김씨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테너로, 이미 여러 국제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귀국 공연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해외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동안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향에 돌아와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송 명화 형제, 웅변 대회 특상

지난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전국 웅변 협회가 주최하고 육영수 여사 추모 대통령 친서기 정탈 북괴 만행 규탄 총궐기 전국 남녀 웅변 대회가 장춘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제2와드 아론 신권 상향회 회장인 송 명화 형제는 「파도를 넘어서」라는 연제를 발표하여 또다시 대학 및 일반부 전체 특상을 획득하여 물론 성도의 실력을 과시해 주었다.

그는 또한 지난 6월 15일 광주 조선 대학교 자유 수호 반공 투쟁 학생회가 주최하는 전국 남녀 반공 웅변대회에도 참가하여 대학 및 일반부 특상을 차지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중앙 대학교 연극 영화과에 재학중이다.

제5와드 복지 농장 준공

지난 10월 3일 서울 제5와드는 장로 정원회 복지 위원회 주관하에 온 가족이 물론인 서 일중 형제와 이 병희 자매 가정의 소유 임야 400 평을 빌려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장에는 5와드 소속인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내외와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물론 개척자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겨 보았다.

제5와드 장로 정원회는 복지 농장에서 거둔 농작물로 장로 정원회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아이링 박사, 신학원에서 특별 강연

한국 정부 초청으로 내한한 헨리 아이링 박사 부부가 지난 9월 3일 오후 6시 신학 연구원 2학기 개강식에 참석하여 「과학자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그는 강연을 통하여 과학 창조의 신비등 모든 인류 생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며 그분은 전지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임을 굳게 믿고 있다는 힘찬 간증을 들려 주었다.

부인인 밀드레드 베니온 자매는 특별 찬송을 불러 참석한 학생 250여명과 신권 지도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